

23-3, 2023 년 3 월달 밴쿠버 김은중이유진선교사 편지

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때에)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눅 22:33)

3 월은 봄이지만 겨울 같은 봄이었습니다. 3 월말에 갈릴리교회 청년 찬양팀을 초대해서 초청잔치게 예정 되었는데 갑자기 렌트한 곳에서 장소를 취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초청잔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허락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더 준비하고 잘 초대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려야 했던 3 월이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선교소식을 전해 드리기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 대부분이 초신자이고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기에 매주마다 그룹성경공부를 하고 잠깐 메시지를 전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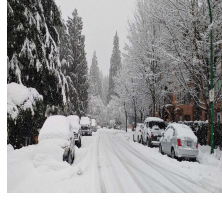
저는 주제식 설교보다 한 성경과목을 정해 놓고 강해식으로 설교 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21 장에 접어들었는데 다 아시듯이 21 장은 종말 시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비록 말과 글은 제가 준비하지만 성령님께서 전달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주님을 붙잡고 나누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변질되고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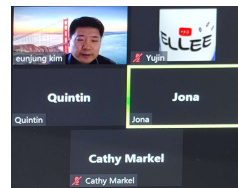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진리,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고 찾지만 쉽지가 않고 오히려 배신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시간의 문제이지 틀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계획과 프로그램과 노력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결국은 이 말씀이 한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종말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 주셨지만 모두들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반드시 주님은 마지막때에 이루어 주실것을 확신합니다.

2. 3 월 사역을 돌아보며



3 월이었지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밴쿠버는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인데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꼭 많은 눈이 내립니다.



10 여명 정도 함께 그룹바이블식 성경공부를 통해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정 같은 분위기 식사교제하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과연 초신자들인데 말씀을 알아들을지 궁금했었는데 어느 예배에 지난주 예배에 대해 질문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 시에는 인터넷 예배로 오프라인에 참석치 못하는 사람들 위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예배 후에 핑퐁교제를 나눕니다. 예배때는 10 여명이 참석하는데 예배후에는 탁구를 사랑하는 탁구 멤버들이 옵니다. 그들의 NEED 와 진리의 말씀을 잘 조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때가 되면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 심방하고 교제하는 사진들입니다. 인도 AJ 형제, 베크남 WHA 자매/ 필리핀 RALF 가족/ 이란인 NASER, NADAL/ TAIWAN 첼시, 이란인 SHIVA



3 월달 에 가장 큰 빅 이슈는 아들 요한이가 2 주간 밴쿠버를 방문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학교 수업을 멈추고 아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배도 함께 참석하여 성도들과 해변도 거닐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학교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월달에 아쉬운 것은 초청예배를 하지 못한점과 캠퍼스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입니다. 3 월에 바로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곧 봄방학을 2 주간 들어가서 캠퍼스 심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졸업한 ADISU 는 가르치는 교수의 사역에 바쁘고 이란 출신 AMIN 형제는 이란을 방문하고 중국인 FRANK 형제는 박산 논문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3. 4 월달 기도제목

- 1) 캠퍼스 심방이 다시 활기를 찾고 탁구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체들을 많이 만나도록
- 2) adisu amin, zerofile, frank 형제와 다시 그룹공부가 시작되도록
- 3) 주안에 행복한 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토요일 탁구교제속에 새로운 지체가 오도록
- 4) PAUL 집사와 매주 목요일 일대일 공부가 계속 잘 진행되도록
- 5) 밴쿠버의 캐나다인 교회 그리고 시청과의 만남속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후원교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 6) 저희 가정이 늘 성령충만하여 주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포용하고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